2강. 프리츠커상을 통해 현대 건축의 흐름을 읽다

건축의 노벨상인 프리츠커상을 받은 세계적인 건축가들을 만나본다.
1979년~2013년 수상자 중, 프랭크 게리, 렘쿨하스, 안도 다다오, 자하 하디드, 리처드 로저스, 장 누벨 등 우리에게 익숙한 세계적 건축가들의 작품과 이야기를 통해 현대 건축의 흐름을 살펴본다.

■ 프리츠커 건축상(Pritzker Architecture Prize), 1979, 하얏트 재단

세계 최고의 건축상, 건축계의 노벨상

"건축예술을 통해 재능과 비전, 책임의 뛰어난 결합을 보여주어 사람들과 건축 환경에 일관적이고 중요한 기여를 한 생존한 건축가에게 수여하는 상"

혁신성 + 건축적 사고의 훌륭함 + 건설기술의 적절한 사용

■ 프랭크 게리 (1929~) 캐나다,미국건축가, 해체주의 건축가

빌바오 효과(Bilbao effect) / 도심활성화, 도시브랜드의 메카

물고기 비늘처럼 수 십만개의 비행기 외장재로 쓰이는 티타늄 판의 은은한 빛

-해체주의 : 기존의 절대적 심미성을 해체하려는 예술운동
기존의 관습과 전통에서 억눌려있고 갇혀 있던 것을 끄집어 내어 전혀 새로운 것으로 선보이는 것
-형태의 해체 : 사각형의 완결된 형태, 중력의 해체
-공간의 해체 : 십자축과 유클리드 기하질서로 구체화
-논리구조의 해체 : 합리주의 논리구조,스케치-도면-모델의 3대 설계기법 해체

■ 안도 다다오 (1941~) 일본건축가

"빛과 콘크리트의 마법사"

1970년대 중반부터 트레이드 마크인 노출 콘크리트 기법사용, 창조력의 한계를 시험하는 도전!

- 벽 안 밖을 단번에 마감이 가능,
  제한된 예산과 대지에서 최대한 커다란 공간을 확보,
  가장 간단하고 비용도 저렴한 해결책 시험하는 도전!

"장식을 배제하고 소재의 느낌을 순수하게 표현하는 것이 모더니즘의 원리 이지만 일본적 건축의 감성이다. 알몸뚱이 건축, 섬세하고 부드럽게 일본인 정서에 맞는 재료마감을 표현했다"

■ 렘 쿨하스 (1944~) 네델란드 건축가, 영국 AA School, OMA

해체주의 건축으로 정의되어 세계적으로 유행, OMA Circle,신구성주의 그룹

속박 / 구조적 / 정형화된 모델 / 이데올로기 / 질서 / 프로그램 으로부터의 자유

- 인본주의적 복고의 시도,정신분석학을 위한 인간의 꿈에 근거한 설계
- 20세기의 메트로폴리스 현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이데올로기가 사라진 현 시대의 쾌락적 시대상황과 부합
- 보편적인 층의 개념 탈피(종이 접기같은 형태)
  경사진 연속된 바닥면, 중력에 어긋나 기울어진 면 일체화
- 도시계획 : 혼돈을 피하기 위한 VOID방법,
  "가장 중요한 지역에 무엇을 짓고 무엇을 인공적으로 만드느냐의방법이 아닌 짓지 않아야 할 곳을 찾는 방법으로 시작"

■ 헤르조그, 드 뮤론 (1950~) 스위스 건축가
"도발적이고 애매모호한 아름다움의 건축가"

- 본질을 위해 상징을 무시하고 표현과 의사소통을 포기
- 대상의 관찰 + 도발적 상상력 강조

" 건축가는 자신이 설계하는 건물에 의해 직접적인 표현을 하고 그것을 기호와 같이 기능시키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것은 벽이나 개구부, 다양하게 변화하는 특질을 지닌 외관이라는 이념이다.
그래서 내 건축물은 점점 현대적인 재료나 소재를 염두에 두고 설계된다.
소재의 선택은 완전히 건축물의 개념에 의존하게 된다. 개념이 없으면 설계자만 만족하는 결과를 맞는다. "

■ 자하 하디드 (1950~) 이라크출신 영국건축가, 수학전공, 해체주의
"독창적이고 환상적인 공간의 연출가, 실험적이고 독특한 건축가"

"A라는 건물은 이래야 하고, B 건물은 이래야 한다는 식의 사고는 혐오합니다."

- 구성적 해체주의 건축
- 회화와 조각을 재구성해 건축으로 표현, 말레비치,모호이너지 영향

"날아갈 듯한 비정형 형태와 휘감아 도는 선들의 아이덴터티 "
"그녀는 최첨단 기술을 실험하도록 그녀를 자극하는 자연적인 지형과 인공적인 시스템을 융합하면서 건축과 조경, 지질학 간의 정밀한 경계면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것이 바로 그녀의 비전 중 하나다. "

■ 장 누벨(1945~) 프랑스건축가
용기 있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추구하고, 인정된 규범에 도전함으로써 건축의 경계를 확장

"장 누벨은 건축의 한계를 넓히기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와 양식을 추구했다"
인내와 상상력, 그칠 줄 모르는 창조정신

-모더니즘의 다양한 이미지를 실험+최소한도로 절제된 형태를 조합
-정갈함과 투명함 고양 + 섬세한 금속재료를 활용
-'자동차 부품을 연상시키는 피막구조를 사용하는 건축가 '
피막안에 있는 내용물의 구조까지도 들여다볼 수 있을 정도의 투명성
-가시성과 비가시성, 밝음과 어두움, 고정과 율동,
차원의 초월 등과 같은 건축적 화두를 실험

■ 피터 줌터 (1943~) 스위스건축가,가구조립가 장인,디자인,인테리어
"대지의 미덕을, 지역 문화의 유산을, 건축 역사의 교훈을 존중하는 건축가"

"본질이 아닌 것들을 찬미하는 사회 속에서,
건축은 형태와 의미의 낭비에 대항하고 저항하며, 그 자신의 언어를 이야기해야 한다."
자연 채광과 재료의 특성을 살려 환상적이면서도 공간에 들어선
이들의 심성을 압도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건축의 연금술사"

강영란/ kyr824@hanmail.net / 010-6391-8283
http://blog.daum.net/kyr824